

11일 Market Index			
▲ 코스피	3344.20	▲ 코스닥	834.76
	(+29.67)		(+1.76)
▼ 금리 (미국 9년)	2.420	▲ 환율 (원·달러)	1393.15
	(-0.010)		(+6.55)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남은 임기는 도약·성장 시간 될 것”

李 대통령 취임 100일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부동산→산업 자금 전환
투기수요 억제·안정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50억원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면서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고 강

조했다. 이어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 다행히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모두발언을 끝낸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기자회견 때와 동일하게 곧바로 기자들과 질의응답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제 만약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10억원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기본적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것, 금융의 대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제 부동산 투자는 자산 증식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외 주택담보대출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인 6·27 대책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부동산 대책을 내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폭락·폭등해도 안되고 적정히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하는데, 아직도 국민들 (머리) 속에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 자리잡고 있다”며 “(다만 이런 추세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속작시하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부동산 가격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수요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빌려서 전세 끼고 집사는 것이 집값을 올려 주거 비용을 과도하게 만들어 소비 역량을 떨어트리고 젊은이들에게 집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겼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끊임없이 초·중·고·대 수요들을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5 물류&모빌리티포럼’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물류&모빌리티 포럼’이 올해로 어느덧 10년째를 맞이합니다. 그 사이 물류·모빌리티 산업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동’이 공통분모인 이들 산업의 앞으로 10년은 더욱 빠르게 진화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더욱 스마트해지는 기술은 사람과 물건을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간과 공간 사이를 오고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연결’, ‘친환경’, ‘공존’, ‘안전’은 핵심이 될 것입니다.

10회를 맞는 올해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선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이라는 의미로 세상에 선보인 기아자동차의 PBV(Platform Beyond Vehicle)의 탄생 배경과 혁신적인 제품이 그리는 현재와 미래를 제시하려 합니다. 사람의 라이프스타일과 기업의 비즈니스 그 중간을 공략하는 기아 PBV는 바로 물류와 모빌리티의 대표적인 융합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선 미래의 운송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 자율주행으로 심야시간 서울 강남을 누비고 있는 로봇택시, 그리고 중소 제약사들이 협력해 만든 혁신적인 물류 풀필먼트 시스템의 도전기를 듣는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 주 제 :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 일 시 : 2025년 9월24일(수) 14:00~17:00(내빈 티타임 13:4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문의·참가신청 : 2025 물류&모빌리티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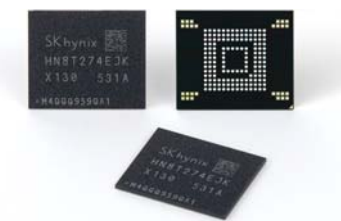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SK하이닉스, AI 스마트폰 공략 고성능 모바일 낸드 세계 첫 공급

모바일 낸드 ‘ZUFS 4.1’ 양산
AI폰 성장세 따라 수익 청신호

SK하이닉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 공략을 위해 공격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스마트폰 시장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스마트폰용 고성능 모바일 낸드를 업계 첫 양산·공급에 성공했다. D램 시장 1위를 차지한 SK하이닉스가 낸드 시장에서도 약진해 주목된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 낸드 ‘ZUFS 4.1’을 고객사에 공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6월 인증 절차를 마쳤고, 7월부터 양산 공급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AI 스마트폰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SK



SK하이닉스가 공급 개시한 ZUFS 4.1 모바일 낸드 셀루션 제품.

하이닉스의 수익성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24년 AI 지원 스마트폰 제품 출하량은 2억3420만대에 달하며 이는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약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2028년에는 AI 스마트폰이 전치 시장의 60~7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구급로 추측하고 있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韓美 조선 협력, 노사갈등·비자규제에 발목

임금 방식 이견에 전면 파업
숙련 인력 파견 제약도 겹쳐
MASGA 협력 불확실성 확대

조선업계가 국내 노조의 공동 파업과 미국 비자 규제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면서 한미 조선업 협력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이날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가 올해 들어 11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으나 전

면 파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 5월 20일 상견례 이후 23차례 교섭했다. 지난 7월 18일 1차 잠정합의안을 만들기도 했으나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됐고, 이후 다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노사는 특히 호황기에 걸맞은 임금 인상에는 합의하면서도 인상 방식을 놓고 다투고 있다.
노조는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수주 상황과 글로벌 경제 요인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격려금(일시금)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이 아직 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HD현대미포와의 합병, 싱가포르 투자 전문 계열사 설립 등이 발표되면서 노사분규가 격화됐다. 이밖에도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하청 노조까지 임금 협상 불발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 측이 전향적인 협상안을 제시할 때까지 전면 파업을 이어갈 방침

이어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조합원의 파업 참여율이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길어질수록 회사와 구성원 모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미국 비자 문제도 MASGA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2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

메트로 한줄뉴스



▲반기문, 美 한국인 구금에 “동맹국에 합당한 처사 아냐… 안타깝고 화나”
▲국힘 “권성동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 특검법 필리버스터 안 한다”
/사진 뉴시스

▲2차 추경 80% 집행 완료…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 지자체 교부
▲여가부 장관 첫 방문지는 ‘디성센터’ “젠더폭력 대응 강화할 것”

▲정청래, 중국대사 접견 … “한중 전략적 협력 관계 발전시켜야”
▲국정원 “김정은, 방중 ‘정상국가 지도자 연출’ 자평